

'87 美·歐洲 電子部品市場 展望

技術調査室

미국의 TV시장은
가정용기기 시장 중에서도
가장 안정된 시장으로 각사의
현지 생산체제도 갖춘 대형TV에
관해서도 운반·수송 코스트 관계에서
현지 생산의 비중이 증대할 것이다.
컬러TV의 구주 수요는 금년에 보합세로
보는 Sharp에서도 서독에서의 컬러TV 매상
전체의 60%가 대형이며 금년 후반부터
25인치형과 28인치형에 한해서
스페인에서 생산된 것을
서독으로 돌릴
계획이다.

円高下에서 電子部品 관계의 國際市場도 최근 1년여 사이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87년은 日本이 아시아 NICS로의 生産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한편 欧美市場에 대해서도 貿易摩擦, local content(부품의 현지조달률 의무화) 등을 배려하면서 구체적인 対応을 펴하겠다는 해라 할 수 있다. 일본계 부품 메이커의 진출, 생산 능력의 增強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지기업과의 치열한 판매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I. 美國

코넥터 業界를 중심으로 한 대형 전자부품 메이커가 불황을 겪고 있는 不振으로부터 해어나오기 위해 한국 등 동남아로의 生産 전환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 코넥터 메이커인 AMP, Molex, Dupont 등 각사가 한국에 이미 生産拠点을 설립하고 있으나 한결같이 최근 1년사이에 설립한 것으로 업계 톱 메이커인 AMP는 서울에 있는 5만m² 이상의 공장에서 자동차용과 家庭用, 電子機器用 코넥터를 작년 말부터 생산하기 시작했다.

同社에 의하면 韓国市場의 수요를 동공장에서 모두 커버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계 메이커도 코스트 절감, 円高 대응 등을 배경으로 한국, 대만에서의 生산비율을 높이고 있어 치열한 경쟁관계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국의 코넥터 산업과 공급업자는 軍需用市場이 商業用市場의 부진을 타파하는데 공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으나 정부예산의 삭감과 연기 등으로 불확실요소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軍需用 코넥터 시장이 코넥터 총수요의 35~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비율로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 온 만큼 과거 2년 이상에 걸친 メイ커 처리 및 通信분야의 국내부진과 더

불어 2중의 타격을 받고 있는 등의 배경에 깔려 있어 美国의 대형메이커의 対韓 공장진출에 박차가 가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コーネク터 총매상은 84년에 34억弗이었으나 2년간에 약2%나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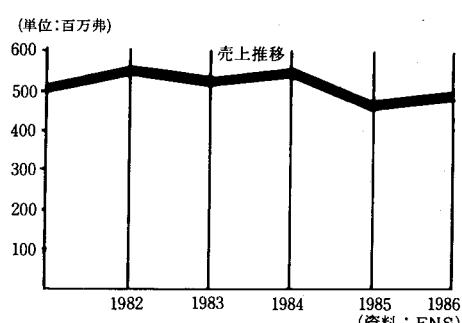
光파이버 コーネク터가 많은 메이커에 의해 개발되고 있으며 90년까지 일대 세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정착하지 못했다. 航空宇宙 관련의 응용분야에서 기존의 コーネク터로는 아직 불충분한 점이 있는 것도 사업으로서 정착하지 못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당면 수요층을 보면 자동화, FA化的 진전에 따른 패키지분야, OEM용의 表面実装, 高密度コーネク터 등을 들 수가 있으며 美업계는 이에 힘쓰고 있다.

美国의 릴레이 시장은 과거 5년간 5억내지 5억 5,000만弗의 규모에서 현상을 유지해 왔다. 주요 응용분야는 각종 자동화기기, 자동차 관련 전자, 자동시험장치 등의 분야로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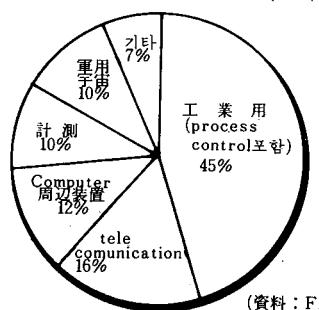
美国의 릴레이市場 規模

(1981~1986)



美国의 응용별 릴레이市場

(1986年/5億10万弗)



릴레이업계에서 서독 시멘스社가 대형 판매회사인 포터 브람필드社를 買収하여 발판(판매분야)을 굳힌 바와 같이 販路를 확대하고 신제품 개발 등 라인업의 확충, 경영체질의 개선 등 살아남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電子部品·計測展인 「WESCON」이 작년 11월 하순 개최되었으나 일본업계와 현지업계가 안고 있는 미국시장에서의 공통 과제는 원가절감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I. 欧洲

서독의 電機工業中央聯盟(ZVEI)에 의하면 서독의 電子部品市場 신장률은 84년 26%, 85년 13%, 그리고 86년에는 보합세를 보였다. 금년은 7.2%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있다. 금년의 시장예측은 금액으로 120억마르크를 내다보고 있으며 유럽 제일의 시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자동차용으로 85년의 매상고가 약10억마르크 전년비 27.5% 증가했다. 또 86년에도 9.4%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유럽 전체에서도 앞으로 자동차용만이 아니라 通信, 컴퓨터시장과 같은 産業用機器 분야에서의 수요도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파나소닉(松下電機)은 자동차부품을 금년의 판매중점 제품의 하나로 지목하고 있으며 무라다(村田製作所)도 回路部品 센서, 高周波部品 등을 자동차용으로서 판매할 계획이며 이에 힘쓰고 있다.

SMT対応부품도 금년에 각메이커가 노리고 있는 부품이라 할 수 있다. 86년 11월 뮌헨에서 개최된 「ELECTRONICA」에서는 SMT에 초점을 맞춘 Chip부품 일색이었다.

서독시장에서도 Panasonic, TDK, Murata, Rohm, Toshiba, 太陽誘導, 日本電気, 알프스電氣, 미쓰미電機 등 일본메이커가 Chip부품 판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Panasonic와 TDK는 自社의 実装機와 관련시켜 Chip部品을 판매하는 시책을 취하고 있다.

海外生産 전환은 電子部品의 해외 수출에도 미묘한 영향을 주고 있다. 86년의 일반전자부품 수출은 1~10월 총누계가 전년동기비, 1.3% 감소한데 그쳐 그다지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다.

더우기 9, 10월에는 전년 동월비 각각 9% 증가, 6% 증가로 오히려 전년 실적을 웃돌았다. NICS를 중심으로 해외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비율로 보면 수출이 감소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서는 일본업체는 다음 3가지 요소를 들고 있다.

① 日本製 部品의 商品化, 高信賴性에 대한 海外 수요자(세트 메이커)의 욕구가 여전히 왕성하다는 것이다

② NICS, 欧美에 있어서의 현지 생산 자회사

용의 피스파츠, 半完成品의 공급 증가 외에

③ NICS 각국의 생산능력이 짜 찾기 때문에 일부 부품 発注가 일본으로 U턴하고 있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이들 이유 가운데 ②와 ③에 대해서는 각 部品메이커가 모두 현지 부품재료 조달률의 향상과 생산설비의 증강을 현재 서두르고 있으며 금년 중반 이후에는 부품문제는 상당히 解消할 것으로 보여져 輸出額上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이 나올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일반전자부품의 수출액은 85년에 전년비 1.6% 감소한 1조 8,262억 엔으로 떨어졌으나 10년전인 75년에 비하면 실로 약 6.8 배라는 급신장을 보이고 있다.

P. 35에서 계속

Murata는 뉴른베르크에서 圧電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SMT對応部品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村田理如 西独村田製作所副所長) 면서 금년에도 Chip부품의 壳上이 신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88년은 서독에서 通信의 ISDN(統合서비스 디지털網)이 시작된다. 이를 기대하여 SMK, 星電器와 같은 일본의 메카니즘 部品 메이커도 通信機, 電話機用 부품판매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複合시스템부품에 힘을 쓰고 있는 알프스電氣는 「금년 이후 빠른 시일내에 全유럽에서 200억円 돌파가 목표」(서독 알프스電氣 山崎孝 - 社長)라면서 대단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계 세트메이커의 유럽에서의 생산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많은 판매를 기대하고 있는 제품은 VTR, 컬러TV, 電子レン지로 이같은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부품메이커도 현지 직접 납품체제를 취하기 시작했다.

Panasonic과 Murata가 서독에서 생산하고 있는 외에 영국에서 알프스電氣와 田淵電氣가 操業하고 있다.

Panasonic은 현재 TV, 비디오用 튜너와 컨버터를 생산하고 있으나 금년에 더욱 TV용 리모트 컨트롤과 유럽에서의 사무기 생산에 대응하기 위해 複写機用 電源의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TDK와 같이 헤라이트와 세라믹 콘덴서와 같은 기초부품은 생산설비가 너무 들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는 한 현지생산은 무리라고 말하는 회사도 있으며 보조가 맞지 않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Panasonic, Murata, 알프스電氣, 田淵電機 등의 현지공장은 본격 가동을 시작한 지 1~2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電子レン지나 複写機에 덤핑 문제가 얹혀짐에 따라 세트메이커의 유럽 생산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일본업체는 보고 있다.